

장흥 양잠산업, 농가 새 소득원으로 키운다

누에 연 4~6회 사육 소득 4배 향상 기대 동충하초 등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주력

고대에 누에에게 뽕잎을 먹여 고치를 생산하고 실크(명주실)를 뽑는 양잠(蠶繭)산업은 요즘 반도체 산업과 비교될 정도로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이었다. 당시 중국은 뽕나무와 누에씨, 명주를 나라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다. 우리나라 양잠산업은 1960~1970

년대 농산물 수출효과 품목으로 손꼽힐 정도로 번영기를 누렸다. 하지만 나일론 등 화학섬유가 등장하며 실크 수요량이 감소한데다 값싼 중국산 실크가 수입되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쇠락의 길을 걸었다. 최근 양잠산업 추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섬유

를 뽑는 데에서 벗어나 기능성 건강식품 소재산업인 바이오 양잠산업으로 안전 탈바꿈했다. 누에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고막이나 인공 뼈 등 의료용으로 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장흥군이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새롭게 양잠산업에 도전한다. 장흥군은 농촌진흥청과 손을 잡고 새로운 양잠 사육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행 양잠법은 봄과 여름

에 2번만 사육했으나,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사육기술은 연간 4~6회까지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양 산업이었던 양잠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대 보급하고, 기존의 양잠 농가 소득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의 경우 누에는 과거에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됐으나 지금은 농가 일손부족 등으로 인해 1970년대 45ha였던 재배면적이 현재는 12ha로 줄어들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사육기술을 활용하면 1년 2회 사육에서 4~6회까지 누에사육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잡업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꾸지뽕나무 잎을 먹은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개발 등 다양한 기능성 양잠산물을 생산과 오디 수확용으로만 이용했던 오디 잎을 이용한 누에 사육기술 개발에도 주력해 양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농 현장 찾아 신기술 전파 농협 안성교육원·영암 신북농협 고추교육

농협 안성교육원(원장 김옥근)과 영암 신북농협(조합장 이정기)이 영농현장을 찾아 농가의 영농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기술을 전파하는 현장 컨설팅에 발 벗고 나섰다. 농협 안성교육원과 신북농협은 최근 영암 신북농협 회의실에서 영암 관내 조합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산지 현장 영농기술 고추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농협 안성교육원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고추의 재배기술과 현장컨설팅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옥근 농협 안성교육원장은 “이날 현장 영농교육이 평소 영농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쁜 영농활동으로 교육원 일교가 어려워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1일 봄나들이 나선 상춘객들이 담양군 국제 청소년교육재단 임구 도로에서 붓꽃 나무가 만들어진 연분홍 터널을 거닐고 있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면서 올해 붓꽃 개화가 평년보다 10여일 빨라졌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전남도, 동남아 수출상담회 100만달러 계약

베트남 등 3개국서 광부품 기업 참여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61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고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권 광역 경제 선도산업 육성사업(산업생태계 지원) 일환으로 (재)전남 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 산업지원센터 주관 하에 지난달 7일까지 5일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순회하며

‘2014년 동남아시아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는 호남권에 소재한 6개 중소기업과 현지 45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 매칭을 통한 개별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매칭을 통한 상담회의 주요 품목은 광부품 및 시스템, LED 조명 등 광주·전남 광산업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들로 현지 바이어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615만 달러에 이르는 상담과 함께 8건의 기업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주)태종이 베트남의 랑동과 22만 달러 규모의 식물 재배용 조명

등 및 제이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주)에프엔엔, (주)CTL, (주)파파스가 80만 달러에 이르는 추가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중소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전망이다. 장현범 전남도 창조경제과장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수출상담회를 더 확대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상황 신속 대응

구례군-119 안전재단 119 ID 사업 업무협약

구례군은 119 안전재단과 지난 31일 군청 군수실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119 ID(안전인식) 보급 및 시스템 구축 ▲119 ID 홍보 ▲가입자 동시 및 신청서 제공 ▲119 ID(팔찌·스티커) 배급 등에 대해 협조할 것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19 응급구조대 출동시 119 ID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시에 일반 주민보다 의사소통과 보호자 파악, 보호기관과의 연락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응급환자의 병원이동후 수술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보호자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연락을 할 수 있어 초기대응이 중요한 응급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 관계자는 “119 ID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왕인박사와 함께 역사여행 떠나요

4~7일 영암서 문화축제 놀이마당 등 체험행사 다양

올해로 17회를 맞는 2014 영암왕인문화축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왕인박사 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왕인과 떠나는 역사여행, 문화로 즐기는 기(氣)찬 영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역사를 배우는 테마에 놀이를 보태 한층 더 흥미를 끌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왕인박사 유적지를 출발해 홍살문, 봉선대를 지나 상대포 역사공원까지 행진하는 군민창작 거리극 ‘왕인박사 일 본가오’ 퍼레이드다. 400여 명의 군민이 배우가 되고, 1000명 이상의 축제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의 주인공이 된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 ‘왕인’으로 김전수(전 교사)씨를 선정했다.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왕인 학 등(學燈)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학문의 신(神)’으로 추앙받는 왕인박사

에게 왕인학등을 달고, 학업성취 소원패를 써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행사로는 상대포 놀이마당과 왕인전래문물 놀이마당, 박사마을 놀이마당에서 다채롭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에 펼쳐지는 ‘왕인 따라 달빛 걷기’와 ‘불꽃놀이’는 불밤의 색다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氣)체험을 비롯해 외국인 K-POP 콘서트, 왕인 청소년스타킹, 영암 민속놀이, 마당극 등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한편 영암 도기박물관은 축제 기간동안 도기박물관 명품판매장과 왕인문화축제 특별판매장에서 도기 3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할인 대상은 영암 전통도예장이 만든 반상기, 다기세트, 밥그릇, 대형 광구병 등 총 57종의 생활도기와 도예작품이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드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웅봉	522-7752
우산	512-8116
월곡	371-9818
중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월	224-6604
침단	673-1600
충장	973-2900
치평	224-8212
치평	376-6511
하남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물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영광군	351-0055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함평군	324-8111	광주광역시							
무안군	452-8535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영암군	471-1717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여수시	692-0997
		영흥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진도군	543-0100	해남군	537-6767	완도군	554-6677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이농**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 062 227-9600 | 신문구독 _ 062 220-0551 | 예향구독 _ 062 220-0550